

'조선의 끝에서 희망을 외치다!' 2025 보성 국가유산 야행 10월 개막

이순신 장군의 숨결 깃든 보성, 가을밤 빛으로 깨어나다!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오는 10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보성을 일원에서 '2025 보성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야행은 "조선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외치다"를 주제로, 국가유산청과 전라남도가 후원하고 보성군이 주최·주관한다.

'야행(夜行)'은 밤에 떠나는 문화유산 여행이다. 군은 낮에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빛과 색으로 문화유산을 만나고, 그 속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체험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순신 장군의 숨결, 보성에 서리다! '보성'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수군 재건을 위해 군량미를 확보했던 조선의 희망의 땅이며,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전선이 있습니다"라는 장계가 울려진 곳이다.

또한, '보성 오층사'에는 이순신 장군의 전우이자 행주대첩의 숨은 공신, 선거이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보성 향교'는 일제 강점기에 항거의 불씨가 된 보성향교 제주조난사건의 현장이다.

이처럼 보성은 호국과 항일 정신을 간직한 고장으로, 이번 야행은 그 역사적 의미를 빛으로 되살려낸다.

△ 밤에만 열리는 특별한 역사 여행

프로그램은 총 8개 분야, 16여 종으로 꾸며진다. 문화유산을 미디어아트와 조명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야경(夜景), 빛으로 그림을 그리고 감상하는 야화(夜畵), 역사 인물이 직접 해설하는 투어 야로(夜路), 방진관과 오층사에서 듣는 이순신·선거이 장군 이야기 야설(夜說) 등이 관객을 맞이한다.

또한,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 야사(夜史), 지역민이 운영하는 프리마켓과 당

근마켓1597' 야시(夜市), 방진 야시장의 먹거리 야식(夜食), 춘운서숙에서 차명상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룻밤 야숙(夜宿)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군량미를 구하라!>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보성 득량에서 군량미를 모아 수군 재건의 불씨를 살린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참가자들은 체험을 통해 군량미를 모으고, 조양창에 기부하면 인증서를 받는다. 이는 "심시일반 모인 군량미가 조선을 구한다"라는 역사적 의미를 오늘날의 나눔과 기부 문화로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다.

2025 보성 국가유산 야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문화관광과 ☎ 061-850-5241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야행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결합한 문화유산 활용 모델을 제시하는 행사로, 재미와 의미를 함께 발



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10월 가을 바람과 함께 은은히 빛나는 보성의 문화 유산을 걸으며 특별한 야간 여행을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제10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10월 25일 개막

아이들 위한 키즈존 더 확대 캐릭터 공연 등 즐길거리 가득

제10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가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 가을이면 황금빛 갈대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강진만에서 열린다.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문화·생태 축제'를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지난해보다 문화 다양성과 친환경 생태 체험, 그리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강화돼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에 진행되는 '베트남인의 날 in 강진' 행사는 광주-전남지역에 사는 베트남인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교류의 장으로, 지난 9일 강진군문화관광재단과 광주-전남베트남교민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댄스와 노래 공연, 전통의상과 음식 체험 등을 통해 베트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이번 축제에는 생태환경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살린 업사이클링 체험도 확대된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K-콘텐츠

열풍에 맞춰 한국민화뮤지엄과 함께 한국 전통 민화인 '까치호랑이(작호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공예와 페플라스틱 뚜껑을 재활용한 키링 만들기 체험을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는 동시에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울 계획이다. 전통과 현대, 문화와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강진만의 특별한 체험이 되길 기대한다.

무대 프로그램은 더욱 다채롭다. 개막 축하 콘서트에는 감미로운 보컬의 김은미와 감성 발라드 테이가, 폐막 무대에는 그룹 GOD 출신의 김태우가 대미를 장식한다.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 역시 규모를 확대해 슬라이드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불력·미니카 체험, 어린이 슈퍼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말에는 우수 댄스파티와 뽀로로, 브레드 이발소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 공연인 어린이 싱어롱쇼가 펼쳐져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 전망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진도군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가축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가축 질병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가금류 사육 농가에 전담 공무원

진도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총력

추석 연휴 전후(10월 2일, 10월 10일) 일제 방역 추진

을 지정해 예방 활동과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가금류 사육 농장에는 '방사 사육 금지, 분노 차량 이동 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24시간 거점 소독시설'을 운

영해 차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며,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와 양돈농가에는 공동 방제단을 투입해 정기적인 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 전후인 10월 2일(목)과 10월 10일(금)에는 '전국 일제 소독 방제

의 날'을 운영해 축산 관련 시설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마을 방송과 문자 발송을 통해 전 군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농가별 출입 통제와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 30일 창평임시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창평임시시장을 시작으로 10월 2일 담양상설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에서 이어진다.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제공을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담양사랑상품권을

담양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군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 상권 활력 도모

15% 특별 할인해 판매한다.

군은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철원 군수는 창평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담양사랑상품

권 15% 할인을 홍보하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추석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양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산물 환급행사는 중마시장과 광양5일시장에서 열린다. 중마시장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오전 11시~오후 7시, 광양5일시장은 10월 1일 하루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된다.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재료 비중 70% 이상 수산물가공품이다.

광양시 전통시장에서 추석 장보면 온누리상품권이 돌아온다!

추석 장보기 부담은 덜고, 전통시장 활력은 더하고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중마시장, 광양매일시장, 광양5일시장에서 진행된다. 중마시장과 매일시장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광양5일시장은 10월 1일 하루 오전 9시~오후 5시 열린다. 대상은 국내산 농축산물이다.

환급 조건은 두 행사 모두 동일하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

한 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행사별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하다.

행사 참여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행사가 동시에 진

행되는 시장(중마시장, 광양5일시장)에서는 두 품목의 구매 금액을 합산할 수 없다. 각 품목의 구매 금액이 환급 조건을 넘는 경우만 온누리상품권으로 개별 환급된다.

광양시는 이번 환급행사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종 투자경제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환급행사가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화순읍, 2026년 주민숙원사업 예산 확보 총력전

화순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조영일)은 지난 26일 "2026년 주민숙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화순읍 이장협의회 회장(최용호), 화순읍 지역구 국회의원(류종욱, 조명순, 하성동, 강재홍, 김지숙)들과 합동 회의를 가졌다.

금번에 협의된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 정비, 안전시설 설치, 생활 편의시설 개선 등 총 127건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장협의회장 및 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 선정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주민들의 고통이 충분히 반영되고, 어느 한 마을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이 균형감 있게 배정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특히 이번 협의는 조영일 읍장 부임 후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 고통을 토로한 화순읍 관내 75개소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의원들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지역 현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화순읍은 이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영일 화순읍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화순읍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사업이 추진되는 진행 과정도 꼼꼼하게 살펴 주민들의 삶의 가치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